



축산업계소식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민승규씨, 제2차관 하영제씨 임명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에 민승규 청와대 농수산식품 비서관, 제2차관에 하영제 산림청장이 각각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민승규 제2차관은 1961년 서울 출생으로 동국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농림부 농정평가위원, 경실련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부위원장 등을 거쳤다.

하영제 제 2차관은 1954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서울대 농업교육과를 나와 경남 남해군수, 진주시 부시장, 거창군수 등을 지냈다.



▲ 제1차관 민승규



▲ 제2차관 하영제

청와대 농수산식품부

비서관에 남양호씨 내정

정부는 지난 12일 청와대 농수산식품부 비서관에 남양호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최형규 청와대 농수산식품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산림청 차장에는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을 각각 내정했다.

농촌진흥청

김재수 신임 청장 취임

김재수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월 2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김재수 청장은 1957년 경북 영양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1회를 합격해 1978년 농수산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근무를 바탕으로 2007년 11월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재임하다가 지난해부터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해 왔다.



▲ 김재수 농진청장

전국한우협회

제 4회 회장에 남호경씨 당선

제 4회 전국한우협회장 선거에서 남호경 후보가 정호영 후보를 8표차로 제치고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18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진 제4회 전국한우협회회장 선거 개표 결과 대의원 267표 중 남호경 후보가 137표, 정호영 후보가 129표를 득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이로써 남호경 후보가 정호영 후보를 8표차로 누르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 남호경 협회장

한국오리협회

신임회장에 이창호 회장 선임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4일 대전소재 유성호텔에서 1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예산결산 심의 및 임원선거를 실시했다.

무투표 당선된 이창호 당선자에 대한 인준과 함께 치러진 부회장단(분과위원장) 선거에서는 임종혁(사육분과), 이덕행(부화분과), 윤영호(토종오리분과)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부회장단 선거에 앞서 실시된 감사 선거에서는 전남출신의 사육분과의 강화섭, 경기지역 유통분과의 최인호 후보가 당선됐다.

임기만으로 물러나는 김만섭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되어 오리협회 발전에 계속해서 역할을 하게 됐다.



▲ 이창호 회장

농협중앙회

김삼수 양계·특수가축팀장 임명

농협중앙회는 지난 2월 김삼수 전 농협축산연구부장을 축산지원부 양계·특수가축팀장으로 임명했다. 김삼수 팀장은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양계컨설팅 담당, 농협사료기술지원부장을 거쳐 농협축산연구원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 김삼수 팀장

2009 대전 국제 축산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설명회 개최

2009 대전국제축산박람회(www.kistock.kr) 조직위원회(추진위원장 장동일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회장)는 오는 3월 5일(목) 오후3시 서울 대치동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컨벤션홀1관에서 축산관련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참가업체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09대전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장 장동일 회장의 주재로 전시장 시설안내, 박람회홍보전략, 박람회운영방안, 향후 추진일정 등 박람회 전반에 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국내 축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비즈니스의 장이 될 이번 박람회는 보다 폭넓은 비교전시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산인들에게는 축제의 장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축산업을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이다.

2009 대전국제축산박람회 주최측은 "박람회는 참여하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더욱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으므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9대전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02-6000-7710~1)로 문의하면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2009년 가축방역 정책 설명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강당에서 제2차관(하영제)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 단체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09년 가축방역 정책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하영제 제2차관은 인사 말을 통해 "가축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가축방역 업무의 최일선에서 땀흘리고 있는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주변 국가의 구제역·AI 발생과 관련 우리나라가 청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이 자리를 통해 농식품부는 '2009년 가축방역 정책', '공익수의사 운영계획', '동물복지·보호대책 추진계획',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계획', 'AI 상시방역 추진계획'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3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미 삼계탕 수출관련 검역관 도축검사 교육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는 수출용 가금에 대한 도계검사 강화 목적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호남지원 검역관들을 대상으로 검역관 도축검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사로 나선 권용국 연구관(검역원 축산물검사부 수의연구관)은 "도계검사와 관련 닭 도축검사시 관



찰되는 병변의 육안적 소견" "닭도축 검사과정 중 생체검사 및 질병별 임상증상" "도축 해체검사시 내부장기검사법" "닭 채혈방법과 미생물(세균 및 바이러스) 채취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번 교육을 통해 검역관들은 닭도축 과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를 판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 추진과 관련 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미국 조사단이 농림수산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련 도 및 수출희망작업장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지 조사보고서(안)를 우리 측에 12월 9일 보내왔다. 미국 측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지적(보완)사항이 있었으며, 보완사항 중에는 수출희망작업장에서 자체검사원 등의 위생관련 규정숙지와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내 내수용 도축의 경우 자체검사원이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출도축 닭은 자체검사원 대신 검역원 직원(검역관)이 직접 도축검사(작업전 확인사항, 생체검사, 해체검사 등) 전반을 지도·감독하게끔 되어있다.

AI·PI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교육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최근 외국의 사람 및 가금류에서 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일선 지방자치단체 등 가축방역 및 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AI·PI 합동교육을 실시하여 분야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동교육은 16개 시·도 및 시·군·구 가축방역 및 보건 담당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동교육을 계기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사람의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업무협약 체결

검역원은 1월 22일 육군복지근무지원단(단장 : 박찬웅 준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요청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써 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산식품 위생·안전성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적자원의 협조를 통해 장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양 기관장은 이 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육군 장병 및 가족, 예비역 등 실질적 주요 소비자에게 보다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공급하는데 시너지 효과는 물론 홍보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

2009년 현장 연구조사 시작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 및 식육관련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올해에도 현장 활용도가 높은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2009년 현장연구조사」를 시작하였다.

소 2, 돼지 5, 닭 2, 계란 1 등 모두 10개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심사는 내·외부 평가단으로 구성되며 연구수행 적합성, 목표 접근도, 현장 활용도, 창의성, 참고문헌 활용의 항목으로 심사하게 된다. 현장에서 등급판정 업무를 병행하면서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 후 그 과제의 해결을 위해 약 1년간 연구조사한 결과들은 등급판정 업무 개선과 고급육 생산 컨설팅 등 농가 지도 자료 및 식육관련 연구자료로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최종결과보고

는 12월 중 「2009년 현장연구조사 결과 보고서」로 발간 될 예정이다.

한국양계농협 정기대위원 총회 개최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은 지난 13일 한강호텔에서 전국 대위원 및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대위원 총회를 개최했다.

오 조합장은 인사를 통해 현재 양계농협이 양계산업과 농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밝히고 계란의 안전성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계란유통센터의 HACCP 인증과 농장단위 HACCP 인증을 추진하고 농협중앙회와 한국양계농협, 대한양계협회 등과 공조해 계란의 세척과 포장 및 냉장유통의 의무화를 이뤄내 계란 유통의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위원 총회는 양계산업과 조합 발전에 공헌한 임직원 및 조합원들에게 감사 및 공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2008년도 사업집행 내역과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였다. 당면현안에 대해서는 최근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에 대한 조합입장과 향후 홍콩에 계란수출에 대한 희망적인 의견도 개진되었다.

한국가금학회 임원 및 이사회 개최 춘계심포지움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키로

한국가금학회(회장 박장희) 임원회의 및 이사회가 지난 20일 한국사료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구성된



임원들의 상견례가 있었으며, 1년간 이끌어갈 이사진을 확정하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춘계심포지움 개최와 관련해서는 오는 5월 중하순경 서울대학교에서 국제심포지움 형식으로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연사를 초청하여 'HACCP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최근의 동향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간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회장단에 위임키로 하였다. 가금학회지의 학진회 등재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학진회 등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이스라엘대사관 이스라엘 농업사절단 모집

이스라엘대사관은 오는 5월 5~7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개최되는 Agritech 2009(2009 농업박람회)에 참가할 농업사절단을 모집하고 있다. 참가 일정은 5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이며 경비는 275만원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라엘대사관 경제과(02-3210-8542)로 문의하면 된다.